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명번역서들

원작의 중후함 살려낸 영미텍스트 번역서들

이재호 번역 영미시집 《장미와 나이팅게일》 · 외

김성곤
서울대 교수 · 영문학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번역은 원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말로 매끄럽게 읽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두 언어의 구조상 원문을 다 살리면 우리말이 거칠어지고, 우리말을 살리면 원문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명번역’은 드물고 또 찾기 어렵다. 그것은 그동안 가장 많은 결실이 쏟아져 나온 영미 텍스트의 한국어 번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굳이 ‘기억에 남아 있는’ 작품을 든다면, 시의 경우에는 1967년에 읽은 이재호 교수의 영미시집 번역인 《장미와 나이팅게일》(집현각)이 있다. 영한대역인 이 시집은 원문과의 대조가 가능해 번역의 충실도와 우리말의 매끄러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가지 다 만족스러웠던 작품으로 기억된다. 번역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고 김수영 시인의 T.S. 엘리엇 시 번역(신구문화사, 1966, 《노벨문학상 수상전집》)도 좋았다.

소설의 경우에는 김종운 교수의 《제5도살장》(커트 보네커트, 을유문화사, 1980)이 좋은 번역으로 기억에 남는다. 원서를 읽은 후 접하게 된 이 번역은 원문의 중층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매끄러운 우리말로 옮겨

져 있는 점이 돋보였다. 그러한 데에는 아마도 역자의 전공지식과 어학실력, 그리고 많은 번역경력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 전문번역가들인 박봉희·오현숙씨의 《편력/정원사 캔스의 외출》(코진스키, 웅진출판사, 1995)도 뛰어난 번역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역서로 기억된다.

비평 및 학술분야로는 김우창·유종호 교수 공역인 《미메시스》(에리히 아우얼바하, 민음사, 1987)를 들 수 있다. 원저와 번역 모두가 10여년에 걸쳐 완성된 이 책은 그만큼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작들이다. 역자들은 특히 영어판과 독일어판을 텍스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중역에서 오는 모호함이나 부정확성을 극복하고, 원작의 중후함

을 살리는데 성공하고 있다.

영미문학 텍스트의 번역을 논하면서 《대지》(필 벅, 삼중당, 1960)나 《순교자》(리처드 킴, 삼중당, 1964)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마가렛 미첼, 삼중당, 1981) 등 50여권의 역서를 남기고 타계한 고 장왕록 교수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백년동안의 고독》(가브리엘 마르케스, 문학사상사, 1982) 등 100여권을 번역한 안정효씨와 《장미의 이름》(움베르토 에코, 열린책들, 1992) 등을 우리말로 옮긴 이윤기씨와 같은 전문 번역가들의 공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경험에서 우러난 이들의 노련함이 국내 번역문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

심오한 러시아문학세계 매끄럽게 옮겨

이철 번역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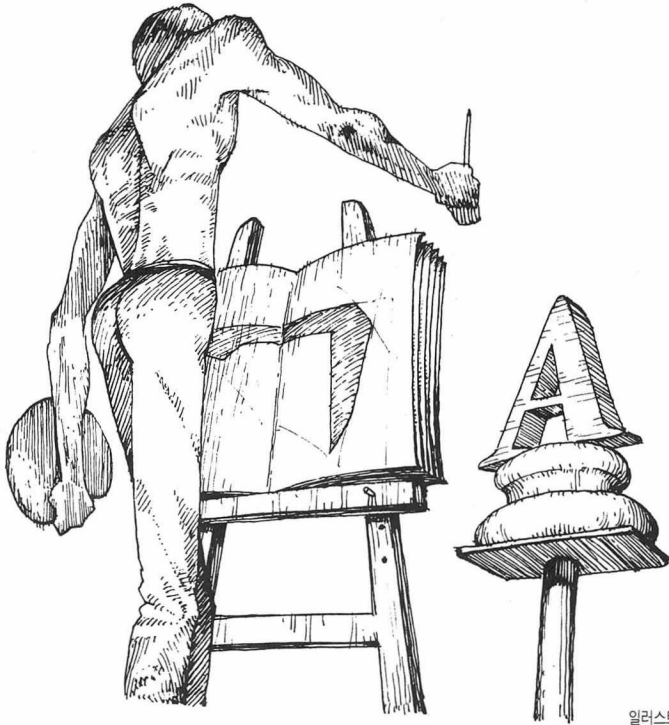
장 실
한국외국어대 교수 · 노어노문학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한다. 《닥터 지바고》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라(1957년) 우리같은 어린 독자들의 호기심까지 자극하고 있었다. 나는 그 두꺼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동무들 앞에 자랑삼아

읽어 보이곤 했다. 몇 해가 지나서 나는 먼저 쌓인 그 책을 다시 펼쳐 정독을 시도해보았다. 옛날보다 왠지 더 어렵고 재미도 없었다. 내용 속의 러시아어 인명 표기(人名表記)의 발음과 머릿속 입력도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날림식 중역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학부 4학년 때였다.

러시아어문학이 우리나라 대학 강의실에서 전공 교수들에 의해 교수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후부터 우리 문학소년·소녀들의 마음의 양식이었던 19세기 러시아 고전들—푸쉬킨, 고골,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그리고 체홉 등의 시, 드라마, 중·단편 및 장편—은 당시 우리나라에서의 중역판 번역문학의 전통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러시아어문학 전공 원로 교수와 그 제자·후학들의 학문적인 열정과 피땀어린 직역 작업의 덕



일러스트레이션 / 윤주영

으로 러시아 문학은 우리 문학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문학과 나란히 보다 폭넓은 독자층을 위한 마음의 벗으로 남게 되었다.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번역책을 소개하려 하니 우선 너무 많은 작가들과 작품들이 기억되어 혼돈스럽다. 그래서 단 한 작품,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정음사)을 골랐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악령》을 발표했다 때(1872), 그 무렵 모스크바에서는 네차예프 사건이라는 5인조 대학생 비밀결사 조직의 사회 전복 기도가 있었다. 변절자로 낙인찍힌 한 사람이 살해되어 그 시체가 발견되고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밝혀졌다. 작가는 이를 테마로 하여 자신이 겪어온 사상적 갈등과 당시의 과격한 허무주의적 무정부상태의 사회의식을 고발하고자 《악령》을 집필하게 된다. 주인공 스타브로긴을 축으로 실제 인물의 캐리커처이자 소설적 허구의 인물인 샤로프, 키릴로프, 베르호벤스키 등의 이른바 악령들이 하나의 이상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과 그 속에서 고뇌하는 개개인으로서, 마치 주인공의 분신처럼 지향하는 바자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살아간다. 결국 이들 인테리겐차들은 폭력과 파괴의 기도, 동료의 살해, 무신론자로서의 형이상학적인 자살 등으로 자의지를 결성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마감한다.

《악령》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작가 특유의 치밀한 심리적 분석 기법을 통해 주인공들의 인신-신인(人神=神人) 사상의 본질과 구체화된 모델을 찾고자 했다. 때문에 우리 독자들이 처음 이 작품을 대할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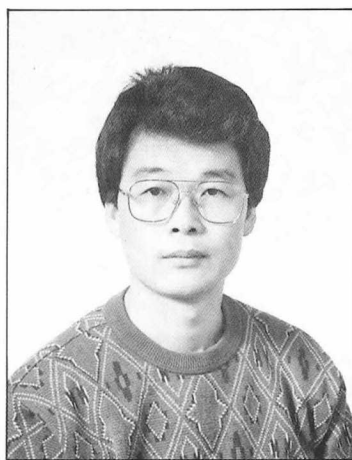
정신이 혼미할 만큼 즐거리의 전개가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럽다. 이것은 결코 번역서를 읽을 때 누구나 느끼는 곱끄러움과 러시아 인명의 어려움 때문도 아니다. 역자(이철 교수)가 밝힌 대로, “너무나 상징적이고

문학예술을 사회 속에서 고찰

백낙청 외 번역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외

김태현

문학평론가·순천향대 교수·독문학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창작과비평사, 1974~81)는 구석기시대의 동굴벽화에서부터 20세기 영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서양문화

개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스타브로긴 같은 주인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스타브로긴의 고백’(제2부에 삽입된 부분)을 정독하면 독자는 자연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며 머리로 맑아질 것이다.

필자는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악령》만큼 나의 고심을 많이 베푼 작품은 없다”는 작가의 고백에 걸맞게 이 작품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역작 중의 역작임을 새삼스럽게 절감했다. 역자는 《악령》을 2년에 걸쳐 원고지 5천매가 넘게 번역하면서 “잔인하리만큼 심오하고 강렬한 작가와 사상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심오한 문학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이고 매끄러운 우리말 번역서임을 실감케 하는 것이리라. ❖

것이다.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선, 김광규 번역, 《살아남은 자의 슬픔》(한마당)

브레히트는 20세기 독일의 최대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서사극과 소외효과라는 두 개념으로 현대 서구 연극이론과 연극사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이자 이론가이다. 또한 그는 시와 소설과 드라마 등 여러 장르에서 재능을 발휘하였고, 연출과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고무 큰 족적을 남겼다. 브레히트는 변증법을 “모종의 경직된 관념들을 해체하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 실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 혹은 더 나아가 상호 연관성 있는 일련의 지적인 방법들”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는데, 그의 작품은 대체로 이런 의미의 변증법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가에 관한 연구가 매우 늦게 시작되었고 또 이 작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한동안 미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자 독문학자인 김광규씨가 번역한 브레히트 시선이 나와 학계와 문단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괴테, 광복록 번역, 《빌헬름 마이스터의 방랑시대》(예하)

이 작품은 괴테가 80세가 되던 1829년에 발표된 소설이다. 1795년에 완성되어 쉴레겔로부터 프랑스대혁명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간주되었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속편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로 이 소설이다. 전자와 후자의 주인공이 빌헬름이고 또 몇몇 등장인물들이 전자와 후자에 함께 출현하고 있음은 이를 잘 입증한다.

그러나 《방랑시대》는 긴 세월 동안의 많은 경험과 여러 작품을 통해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들을 거친 뒤 80세라는 노년기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수업시대》와는 판이한 구조와 사상을 보이고 있는, 그리하여 전통적 소설미학을 벗어나는 새로운 소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괴테의 전집 편집자인 에른스트 보이틀러가 말한 것처럼 이 소설은 노년의 괴테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자 ‘메시지’이기도 한데, 이런 소설을 독문학자인 광복록씨가 최근에 공들여 번역하였다. ❖

의 거의 모든 분야를 철저한 사회사적 관점에서 총정리한 독보적인 저서이다. 서양문화라는 거대한 물체를 일목요연하게 조망하는 데는 박학다식이 필수적인데, 하우저는 그런 박식을 소유한 희귀한 학자였다.

게다가 이 책은 예술작품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되 동시에 예술이라는 인간행위가 지닌 독자성과 복잡성에 대한 존중심도 보이고 있다. 이 역저는 문학이나 예술을 사회 혹은 역사의 맥락에서 고찰하는 풍토를 우리나라에 조성함으로써 그런 맥락과 단절된 문학과 예술관이 풍미하던 한국문화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창작과 비평》의 정신이 이 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암시할

젊은 학자들의 학문적 성실함 입증

이진우·박미애 번역 하버마스의 《새로운 불투명성》

이상화

이화여대 교수·철학



나는 외국책을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은 몇가지 기본자질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번역하고자 하는 원전이 씌어진 언어(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이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자명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영어원전이 아닌 경우, 영어나 일어로 된 번역본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책들이 너무 많다.

둘째, 번역을 하는 사람은 번역하고자하는 원전의 내용과 저자의 이론적 맥락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문장과 용어를 부정확하게 번역하거나, 번역된 문장이 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셋째, 번역된 책이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 되도록 뒷손질하는 정성과 지적인 양심이 있어야 한다. 한편의 책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번역을 하는 경우에 서로 다르게 번역한 동일한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조차 하지 않고 출간하는 번역서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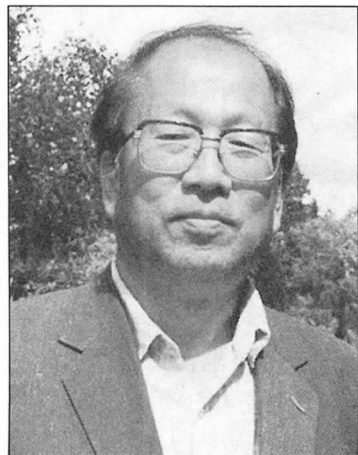
내가 이러한 조건들을 나열한 것은 줄속으로 번역되어 나오는 책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최근에 아주 훌륭한 번역서가 나왔다. 그 책은 위르겐 하버마스의 《새로운 불투명성》이며, 우리말로 옮긴 사람은 이진우와 박미애이다. 나는 이 책을 우리시대에 흔치 않은 ‘훌륭한’ 번역서라고 격찬

유려한 우리말 구사로 독자 심금 울려

전혜린 번역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김광규 번역 하이네의 시집 《로렐라이》

김천혜

부산대 교수·독문학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책을 옮긴 번역자들은 위에 열거한 기본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쉽지 않은 독일어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이진우와 박미애는 대구에서 활동을 하며 많은 연구물을 내는 젊은 학자들이며, 두 사람은 부부이다.

학문분야에서조차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이 훌륭한 번역서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젊은 학자들의 학문적 성실함과 탁월함을 입증하고 서울 중심주의의 아성을 깨뜨리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학문분야에서조차 거의 모든 것을 여전히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책은 평등한 부부의 학문적 공동작업의 모델이 되어 남성중심주의의 아성을 깨뜨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어본다.

❖

한 독일 문학 작품들은 우리나라 작품처럼 우리의 가슴에 바로 와닿는 호소력이 있었다. 60년대 초에 번역된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가 당시 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렸던 것은 그녀의 능숙한 번역에 힘입은 바 컸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독자들은 우리말을 그렇게 능숙하게 구사하는 역자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미인이 아니었다. 게다가 남편 잘 받들고 아이 잘 키우는 한국적 이상형인 현모양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또한 고집 세고 집념이 강했다. 이러한 성격은 당시 한국 여성의 고정관념에 충격으로 다가갔다. 한 남자를 향한 사랑의 집념이 종교처럼 강렬한 것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작품은 엄청나게 읽혔다. 좋은 번역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읽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 번역은 산문 번역보다 더 어렵다. 의미를 살리기 위해 운율을 죽일 수도 없고 운율을 살리기 위해 의미를 죽일 수도 없다. 직역해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역해서는 원뜻이 왜곡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좋은 번역을 이룬 시집으로 김광규(金光圭) 번역의 하이네리히 하이네 시집 《로렐라이》(민음사)를 들 수 있다.

민중적인 시인 하이네는 감미로운 서정시와 격렬한 정치시를 같이 쓴 시인이다. 이 번역 시집은 이러한 상반된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다. 역자가 독문학자이면서 한국어로 시를 쓰는 시인이라는 사실도 번역에 많은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이상 두 역자의 번역을 원문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원문의 자구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한국어로 창작하듯 번역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실로 좋은 번역은 원문의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유려하게 번역하는 것이리라. ❖

번역을 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역자가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독자에게 무리없이 읽히도록 우리말 구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50년대에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필자 세대는 좋은 번역서를 접할 수가 없었다.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증역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또 우리말에 능숙하지 못한 세대가 번역한 것이라 의미가 잘 통하지 않았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이 번역의 미숙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신의 국어 실력을 탓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혜린(田惠麟)이 번역